

“교사업무 경감, 악성민원엔 당당히 대처”

서거석 교육감,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언급

“다신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 조치 이뤄져야
법적 허용 권한 행사, 현재 혼란 정리하는 중요한 방법”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당당히 대처해야 합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라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 교육감은 교사 업무 경감과 관련해 “본청과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업무를 제대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본청과 지원청에서 맡아야 할 업무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동시에, 학교의 인원은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 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하지만 악성 민원에는 당당히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에 대해서

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학생 지도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교사와 직원 모두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정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간부들과 함께 본청 1층 로비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고인을 추모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21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와 함께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라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교원치유프로그램 운영

개인 상담·진료 지원, 학교단위 프로그램 등 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원치유센터를 두고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개인 상담 및 진료 지원 △학교단위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수박형 교원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원상담 및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상담(치료)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또는 의료기관 진료·치료를 제공한다. 도내 50개 전문 상담 기관과 31개 의료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인상담은 238명, 진료지원은 88명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시간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2018년 6권이었던 법률 자문이 지난해 38건까지 늘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교원의 즉시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담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사고당 2억원(형사5천), 연간 총 15억 원까지 보상에 교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교사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8월 4일과 11일 순창힐링랜드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교사의 심신 안정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건

강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다.

2학기부터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인심서비스 시범학교도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인심서비스는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녹음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보호 및 예방연수, 학생 대상 인성교육 및 기본생활교육 확대, 교육활동보호 길라잡이 제작·배부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 직무대리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교원들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4차 정기회의를 연 가운데 양문보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공·필수의료 국가거점

국립대 TFT 구성 의결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서

8개 의제 바탕으로 국립대학 발전 위한 현안 논의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장교인 부산대를 비롯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회원대학 총장단 협의체인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이번 제4차 정기회의에서 △국가거점 국립대학 간 협력을 위한 협약체제와 향후 활동 방향 △서울대-거점국립대 양자 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등 총 8개의 의제를 바탕으로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서울대학교와 9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간의 ‘국가거점 국립대학 간 협력을 위한 협약’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은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공유 △교직원 및 학생 상호 교류 △학점·학기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지식 정보자원, 강의 등 유무형 자산의 공유 및 교류 협력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국가적 난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기적 포럼 개최 등 구체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명시하고, 향후 국가균형발전과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기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이와 함께 총장들은 ‘서울대-거점국립대 양자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과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T/F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양자과학기술을 선정할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거점국립대학들이 보유한 인력과 지식·기술, 연구력을 바탕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양자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고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끝으로 총장들은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이 주도하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양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TFT 구성’을 의결했다.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분야에서 각 대학별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TFT를 구성, 향후 의사 총원 방안 마련 △의사과학자, 필수의료, 공공의료 관련 인재산출, 학제 및 교육과정 마련 △관련 제도와 법규 개정 및 이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2024학년도 고교 학과 개편·남녀 공학 전환 추진

도교육청, 학과 개편 3곳·학급 조정 3곳·남녀공학 전환 3곳... 학령인구 감소 대비 등 반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고교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고등학교 학과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각 고등학교로부터 학과개편 신청을 받아 부서별 검토를 거쳐 최종 9개교에 대한 학과개편 인가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과 개편 3개교, 학급(정원) 조정 3개교, 남녀공학(단성) 전환 3개교 등이다.

먼저 전주공업고등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전자과를 미래산업 수요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변경한다. 교육부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신기술·신산업분야 교육과정으로의 변신을 꾀한다.

진경여자고등학교는 국제무역과를 카메디저트과로, 김제농생명미스타터고는 첨단시설과를 스마트관광산업과로 각각 개편한다.

또 장수군의 백화여고와 고창군의 고창여고는 각각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다.

백화여고는 1883년 설립 이후 최대 18학급까지(학년당 6학급) 운영했으나 현재 3학급(학년당 1학급) 규모로 축소됐고, 고창여고도 1945년 설립 이후 최대 24학급(학년당 8학급)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15학급(학년당 5학급)으로 축소됐다.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이들과 교의 적정학급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학급 증설(김제고 1학급), 정원 감축(전북체육고 25명·세인고 18명), 단성(여)학교 전환(전주삼정정보고) 등이 있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이번 학과개편은 고등학교 입학자원의 감소 등에 대비하고, 또 학교별·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개편으로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미래 교육 수요를 예측한 고교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반부패추진단 2차 회의...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상황 점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추진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육 반부패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교육 반부패 추진단은 교육청 전체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감 주재의 협의체로, 더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교육청 부서별 청렴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추진(감사관)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미래교육과) △학교 운동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문예

체건강과) △현장체험학습 계약과정에서의 부패요인 파악 및 제거(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공무원직인 ‘공정채용 기준’ 규정화로 채용절차 확립(노사협력과) △시설공사 부패근절 T/F 구성과 단계별 청렴 약속 강화(시설과) 등 20개 부서 32개 추진사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의 본연의 의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치”라면서 “부서별로 수립한 청렴실천 자율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상반기 청렴교육
교직원 등 1만224명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반기 중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부패방지교육계획을 수립한 이후 전문강사 및 전문연극단을 초청해 진행한 교육에는 속기관 및 학교 교직원 10,224명이 참여한 성과를 거뒀다.

이 교육은 기존의 딱딱한 강의 방식이 아닌 연극공연과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계약·공사·운동부 등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1,494명, 행동강령책임관 등 담당자 717명, 5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교(원)장 92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교육도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반부패·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후 열 감사관은 “올해 11월까지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직장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갑질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오주원 교수, 서인아 교수

전북대 오주원·서인아 교수 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오주원 교수와 서인아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성과로 ‘제3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는 국내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총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전북대 환경교육연구단 소속 오주원 교수는 ‘이방성을 고려한 차원 단성과 포노타입 자료의 구조보정 기술개발’이라는 연구논문으로 공학 부문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또 서인아 교수는 ‘인도양 적도해역 90°E 해저산맥 홀로세 퇴적물의 기원 연구’ 논문으로 이학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김승연 박사과정생 KIST 융합 컨퍼런스 ‘최우수’



전북대학교 김승연 박사과정생(유연인공지능공학)이, 지도교수 김태욱(은)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 본원에서 열린 2023년 KIST 학

·연 융합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KIST 서울 본원과 학원 특화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7개의 대학(전북대,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미래캠, 한양대, 성균관대, 서울대)에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김승연 박사과정생은 수열합성법을 통해 2차원 단결정 구리 나노시트를 대량으로 합성한 결과와, 초음파 공정을 적용해 간단하게 기관에 균일한 단층 필름을 코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코팅 방법의 특징과 다양한 활용과 메커니즘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